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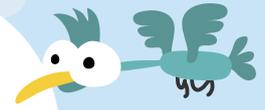
책 길라잡이

읽기를 배우는 단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읽는 자체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읽기를 자동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읽기가 유창해지고 자동화되면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어휘를 활용하여 읽기 이해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생은 자연스럽게 배움을 위한 읽기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현장에는 아직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읽기 유창성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학생에게는 읽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을 동시에 향상하게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고,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생활 속 주요 “알맹이”를 모아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보며 스스로 글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글을 유창하게 읽어낼 뿐 아니라 생활 속의 주요 글감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읽기 이해력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생활 속 주요 내용과 관련된 글감을 각 10차시씩 개발하였습니다.



둘째

100어절 수준의 글감을 여러 번 소리 내어 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점차 스스로 글을 유창하게 읽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각 글감에 적용된 읽기 규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여러 음운 규칙을 쉽게 제시하고
글감에서 적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글을 읽은 후 내용 확인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확인부터 적용 문제까지 제시하여 교과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프로그램 전과 후 자신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평가 글감을 제시하였습니다. 알맹이를 통해 읽기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성장을 격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오늘의 읽기 규칙

본문 속 적용된 음운 규칙을 쉽게 설명해줍니다.



90~110어절로 구성된 글감이 제시됩니다.



읽기 연습

스스로 연습한 만큼 표시합니다.

1

과학적 탐구 방법(분류)

오늘의 읽기 규칙



받침과 '이, 여, 요'가 만나 '니, 녀, 뇨'로 소리 나요.

꽃잎 → /핀닙/

색연필 /생년필/

담요 /담뇨/

나뭇잎 /나문닙/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끼리끼리 모여라

정훈이는 길가의 꽃잎을 한 번 보고 두둑한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오늘 과학 시간에 분류하기를 배우면서 모아온 공룡 카드가 가득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께서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갠 빨래 가지고 가렴.”

어머니는 아버지 옷, 동생 옷, 정훈이 옷 별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어! 엄마도 오늘 분류하기 배우셨어요?”

정훈이는 순간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빨랫감을 양말, 속옷, 윗옷끼리 모아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맞혀보세요.” 정훈이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보자. 옷의 종류별로 분류했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이는 다른 문제를 찾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문제를 맞춰보세요.” 정훈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분류하기를 배우더니 색연필, 장난감, 담요를 잘 구분해서 정리했구나.”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공부한 날을 기록합니다.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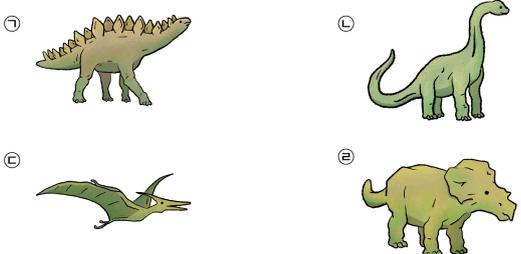
1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 짓는 탐구 방법을 ()라고 합니다.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빨랫감을 옷의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2) 은행에서 동전을 금액별로 나누는 것도 분류하기입니다. ()

3 그림을 보고 정훈이가 세운 기준에 따라 공룡을 분류하여 기호를 쓰세요.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됩니다. 주로 개념 문제 2문제와 이를 활용한 응용문제 1문제로 구성됩니다.

정답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계획을 세우고 지키면서 학교 수업에 맞추어 활용하세요.

순서	글의 제목	음운 규칙	쪽수
	알맹이 시작하기		08~13쪽
1 일차	끼리끼리 모여라	ㄴ첨가	16쪽
2 일차	감각적 표현	경음화	18쪽
3 일차	우리 고장 어디까지 가봤니?	비음화	20쪽
4 일차	물질의 성질과 우리 생활	경음화	22쪽
5 일차	쓰레기야? 자원이야?	연음화	24쪽
6 일차	장님 코끼리 만지기	연음화	26쪽
7 일차	암컷일까, 수컷일까?	경음화	28쪽
8 일차	존댓말이 뭐예요?	연음화	30쪽
9 일차	앉아서 떠나는 여행	비음화	32쪽
10 일차	안녕? 날 소개하지!	비음화	34쪽
11 일차	정현이에게	격음화	36쪽
12 일차	고장의 특징과 지명	연음화	38쪽
13 일차	닭의 한살이	겹받침	40쪽
14 일차	플랑크톤, 넌 누구니?	경음화	42쪽



교과서 속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해 보자!



순서	글의 제목	음운 규칙	쪽수
15 일차	문화유산이 소중한 이유	경음화	44쪽
16 일차	여기 여기 붙여라	겹받침	46쪽
17 일차	원인과 결과	연음화	48쪽
18 일차	녹청자도요지	경음화	50쪽
19 일차	자석과 우리 생활	ㅎ탈락	52쪽
20 일차	소중한 꿀벌 살리기	겹받침	54쪽
21 일차	백령도 할머니 댁	'ㄴ'의 발음	56쪽
22 일차	지구 들여다보기	경음화	58쪽
23 일차	아버지와 세 아들	경음화	60쪽
24 일차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연음화	62쪽
25 일차	지구와 달	비음화	64쪽
26 일차	짐작하여 글 읽기	격음화	66쪽
27 일차	옛날의 통신수단	비음화	68쪽
28 일차	지구의 날	격음화	70쪽
29 일차	스마트폰 속 세상	연음화	72쪽
30 일차	공당 놀이	겹받침	74쪽
알맹이 마무리			76~81쪽



부록

읽기이해 문제 정답 / 교사용 평가 기록지



아름이

시작하기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부터 선생님, 친구들과 교과서 속 여러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읽기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 먼저 나의 읽기 실력을 알아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글이 하나 보여요.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목부터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



이팝나무

우리나라에는 5월이면 초록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푸른 이파리 위로 쌀알처럼 생긴 하얀 꽃잎이 핀 나무를 본 적 있나요? 이 나무의 이름은 이팝나무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데에 예로부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쌀로 만든 밥이 귀했습니다. 백성들은 보리밥을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쌀밥은 벼슬을 하는 양반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반 중에는 ‘이 씨’ 성을 가진 양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밥은 ‘이 씨의 밥’ 또는 ‘이밥’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핀 하얀 꽃잎을 보고 이 씨 양반들이 먹는 쌀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밥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 이밥나무는 자연스럽게 이팝나무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쌀처럼 생긴 꽃잎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팝나무의 꽃이 잘 피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읽은 곳까지 // 표시해보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읽은 “이팝나무” 사진이에요.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나무와 닮았나요?



오늘의 도전 날짜

월

일

나의 기록을 아래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부분에 표시해보세요.

의미를 잘 살려 띄어 읽었다.



글을 잘 이해하며 읽었다.



알맹이와 함께 공부를 마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읽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 나는 일주일에 3번 '알맹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만
이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과 ‘이, 여, 요’가 만나 ‘니, 녀, 뇨’로 소리 나요.

꽃잎 → /곤님/

색연필 /생년필/

담요 /담뇨/

나뭇잎 /나문닙/



소리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끼리끼리 모여라

정훈이는 길가의 **꽃잎**을 한 번 보고 두둑한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오늘 과학 시간에 분류하기를 배우면서 모아온 공룡 카드가 가득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께서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갠 빨래 가지고 가렴.”

어머니는 아버지 옷, 동생 옷, 정훈이 옷 별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어! 엄마도 오늘 분류하기 배우셨어요?”

정훈이는 순간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빨랫감을 양말, 속옷, 윗옷끼리 모아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맞춰보세요.” 정훈이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보자. 옷의 종류별로 분류했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이는 다른 문제를 찾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문제를 맞춰보세요.” 정훈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분류하기를 배우더니 **색연필**, 장난감, **담요**를 잘 구분해서 정리했구나.”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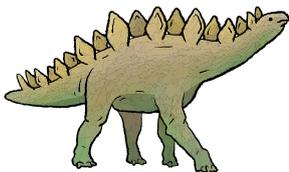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 짓는 탐구 방법을 ()라고 합니다.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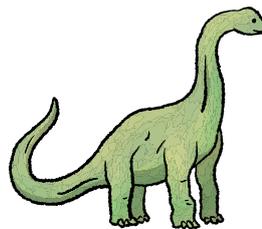
- 1) 빨랫감을 옷의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2) 은행에서 동전을 금액별로 나누는 것도 분류하기입니다. ()

3 그림을 보고 정훈이가 세운 기준에 따라 공룡을 분류하여 기호를 쓰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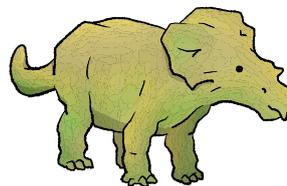
㉡



㉢



㉣



분류 기준

날개가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ㄱ, ㄷ, ㅈ가 ㄱ, ㄷ, ㅈ로 소리가 나요.

감각적 → /감각적/

듣고 /듣고/

폭죽 /폭죽/

폭신한 /폭신한/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감각적 표현

글에 나오는 음식의 맛과 향이 느껴진 적이 있나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사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는 ‘썹’하고 나아가는 차의 모습을 보이듯이 표현하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톡 쏘는 탄산음료’는 입안을 자극하는 느낌이 듭니다. ‘팡팡팡 터지는 **폭죽** 소리’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리듯이 표현한 것입니다. ‘탱글탱글 **폭신한** 인형의 곱슬머리’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주는 느낌을 더욱더 실감 나게 표현해봅시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어떤 감각을 느끼며 표현한 것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고소한 참기름이 어우러진 비빔밥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팡팡팡 터지는 폭죽 소리

냄새가 나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2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세요.

사물의 느낌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3 글의 내용에 맞도록 바르게 이어보세요.

탕탕- 땅바닥을 두들기고
탕탕탕- 담벼락을 두들기고



솜털같이 복슬복슬한 꼬리를 사랑사랑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이 ㄴ, ㄹ을 만나 ㄴ(은), ㄹ(음) 소리가 나요.

첫날 → /천날/

꽃망울 /꼰망울/

앞마당 /암마당/

이튿날 /이튼날/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우리 고장 어디까지 가봤니?

사회 시간에 ‘우리 고장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시울이는 희망초등학교와 학교 뒤에 있는 희망산을 그렸습니다. 이사 온 **첫날** 어머니와 방문했던 행정복지센터와 예쁜 **꽃망울**이 인상 깊었던 꽃가게도 그렸습니다.

정현이도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와 길 건너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이 있는 도서관을 그렸습니다. 희망초등학교와 희망산도 잊지 않고 그렸습니다.

이튿날 교실에서 고장 그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울이와 제 그림에는 희망초등학교, 희망산,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시울이 그림에는 꽃가게가 있고 제 그림에는 없어요.”

정현이가 발표했습니다. 정현이는 왜 그림이 서로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시울이는 엄마와 방문했던 곳을 떠올리며 그렸다고 했습니다. 정현이는 발표를 듣고 서로 경험한 것이 달라서 고장 그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소, 가 본 장소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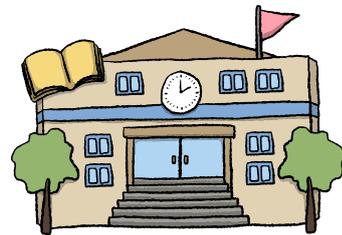
- 1) 산과 하천은 고장의 모습 중 자연을 그린 것이다. ()
- 2) 고장 그림을 그릴 때는 모든 건물을 다 그려야 한다. ()

2 다음 문장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O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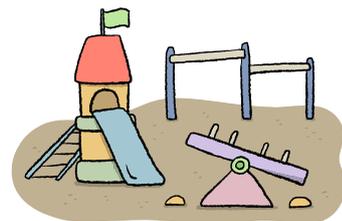
- 1)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고장, 현장)이라 합니다.
- 2) 고장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각자의 (생김새,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다음 장소를 중심으로 고장의 모습을 그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알맞은 장소를 선으로 연결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릴 거예요. 친구들과 이곳에서 뛰어 놀 때 가장 즐거워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장소를 중심으로 그릴 거예요. 이곳에는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서 대출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ㄱ, ㄴ, ㅈ가 ㄱ, ㄴ, ㅈ로 소리나요.

쉽게 → /쉽게/

무겁고 /무겁꼬/

쉽습니다 /쉽쑤니다/

어렵지만 /어렵찌만/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물질의 성질과 우리 생활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합니다.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유리, 종이 등은 물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물질입니다. 종류가 같은 물체라도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따라 좋은 점이 서로 다릅니다.

유리컵은 속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무겁고** 깨지기 **쉽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모양과 색깔이 다양하고 단단하며 가볍지만 튼튼하지 않습니다. 금속 컵은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무겁지만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이컵은 쉽게 찌그러지고 여러 번 사용하기 **어렵지만**, 값이 싸고 가벼워서 일회용이 필요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류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면 쓰임에 따라 알맞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이라고 합니다.

2 각 물질과 그 물질의 좋은 점이 맞도록 바르게 이어보세요.

유리

•

• 값이 싸고 가볍다.

종이

•

• 모양과 색깔이 다양하다.

금속

•

• 내용물을 확인하기 쉽다.

플라스틱

•

• 단단하고 튼튼하다.

3 다음 보기 중 상황에 알맞은 컵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는 음료의 색깔과 투명한 얼음이 잘 보이도록 ()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기



종이컵



금속 컵



유리컵



플라스틱 컵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방법을 → /방버블/

씻어서 /씨서서/

자국이 /자구기/

수거함에 /수거하메/



소리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쓰레기야? 자원이야?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비닐, 유리, 캔 종류는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 페트병도 그냥 버리면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용기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합니다. 샴푸, 화장품, 음료수 등 용기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다면 물로 헹궈야 합니다. 반면, 컵라면 용기처럼 씻어도 국물 **자국**이 스며든 것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둘째, 부착상표를 제거합니다. 페트병을 버릴 때는 곁에 있는 부착상표는 떼어내고 찌그러뜨린 후 배출합니다.

셋째, 분리수거함에 넣을 때 다른 물질과 섞지 않습니다. 유리 **수거함**에 비닐, 깡통이 섞이면 안 됩니다. 제대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하기 좋습니다.

쓰레기도 잘 버리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꼭 기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해 봅시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글에서 중심 문장을 고르세요. ()

첫째, 용기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합니다.

①

샴푸, 화장품, 음료수 등 용기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다면 물로 헹궈야 합니다.

②

반면, 컵라면 용기처럼 씻어도 국물 자국이 스며든 것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③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쓰레기도 잘 버리면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
- 2) 음료수 페트병은 상표가 붙어있어도 플라스틱 함에 넣습니다. ()
- 3)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할 때 다른 물질과 섞지 않습니다. ()

3 글의 내용에 맞도록 바르게 이어보세요.

비우고 씻는다.

•

•



부착상표를 제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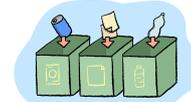
•



섞지 않는다.

•

•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옛짐에 → /옌찌게/

옆에서 /여페서/

말했어요 /말해써요/

범이라오 /버비라오/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옛날 **옛적에**, 한 임금님이 눈이 안 보이는 장님 여섯 명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임금님은 커다란 코끼리를 데려다 만져보게 하고 소감을 물었어요. 먼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장님이 말했어요.

“폐하, 코끼리는 무처럼 아주 단단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옆에서 코끼리의 코를 만진 장님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리를 만진 사람이 말했어요.

“둘 다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커다란 나무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이어서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 같다고 말했어요.

“모두의 말이 맞소. 코끼리의 상아는 무처럼, 다리는 나무 기둥처럼 생겼소. 코는 밧줄처럼 길고, 귀는 아주 큰 부채 같소. 이렇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디서 바라보는지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범이라오**.”

임금님의 말에 모두 깨달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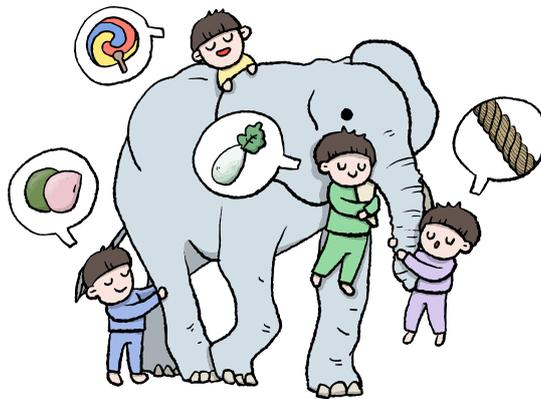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임금님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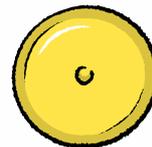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디서 바라보는지
그 _____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2 본문의 내용과 그림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



- ① 귀 = 부채 ② 상아 = 무 ③ 다리 = 떡 ④ 코 = 밧줄

3 딱풀을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렸는지 바르게 골라 O표 해주세요.



(1) (위, 옆)에서 보고 그렸다.

(2) (위, 옆)에서 보고 그렸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ㄱ, ㅅ가 ㅍ, ㅆ로 소리가 나요.

출구 → /출꾸/

가족과 /가족파/

쉽게 /쉽게/

공작새 /공작째/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암컷일까, 수컷일까?

동욱이는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들어서자 사자가 보였습니다.

“아빠, 사자는 갈기가 있어서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자는 왜 갈기가 없어요?”

“갈기가 없는 사자는 암컷이란다. 사자는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가 달라 **쉽게** 구별할 수 있지.”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을 쉽게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 무당벌레나 붕어 같은 동물은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워. 어? 옆에 토끼가 있네. 토끼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겠니?”

토끼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우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깃털을 부채모양으로 펼친 **공작새**가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저 화려한 공작새는 수컷이죠?”

“맞아, 그 옆에 있는 갈색 공작새가 암컷이란다. 수컷에 비해 수수하지.”

동욱이는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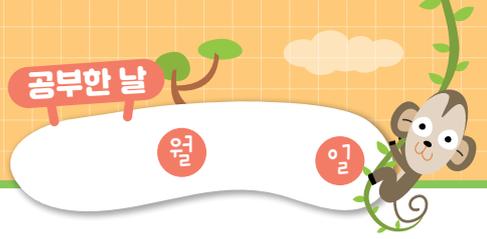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중 동물의 암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사자의 암컷은 갈기가 있다.
- ② 공작새의 깃털 색은 수컷이 화려하고 암컷은 화려하지 않다.
- ③ 붕어와 무당벌레는 암수의 생김새가 많이 달라 구분하기 쉽다.

2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위의 글에서 찾아 쓰세요.

1)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한 동물: _____

2) 암수의 생김새가 다른 동물: _____

3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모든 동물은 암수의 생김새가 뚜렷하게 차이납니다. ()
- 2) 토끼는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맛있는 → /마신는/

높여서 /노퍼서/

외쳤어요 /외쳐써요/

존댓말이 /존댄마리/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존댓말이 뭐예요?

오늘은 서영이 외할머니의 생신이에요. 서영이 어머니는 오늘 아침 마트에서 사 온 재료들로 **맛있는** 저녁상을 차리셨어요.

“서영아, 할머니 생신상이 다 준비되었구나. 방에 가서 할머니 모시고 오렴.”

“네. 엄마.”

서영이는 주방에서 큰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요.”

이 말을 듣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할머니 진지 잡수세요라고 존댓말을 써야지.”

“**존댓말이** 뭐예요?”

“존댓말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말을 할 때 **높여서** 쓰는 말이야. 어른들에게 좀 더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말이지. 엄마랑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존댓말을 쓴단다.”

“아, 알겠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꼭 존댓말을 써서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될게요.”

“그래, 우리 서영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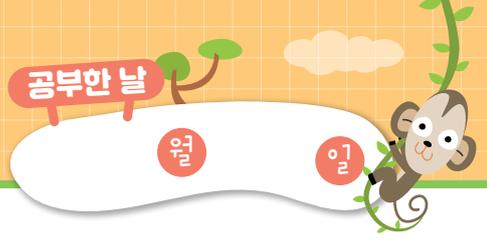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중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한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

- 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 ② 선생님께서 들어온다.
- ③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 ④ 할아버지께서 왔어요.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습니다.’ 또는 ‘-했어.’를 써서 문장을 끝맺습니다. ()
- 2)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습니다. ()
- 3) 높임의 대상에게 ‘께서’나 ‘께’를 사용합니다. ()

3 다음 중 알맞은 높임 표현을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할아버지 () 잡수세요.

보기

밥, 진지, 아침



오늘의
읽기규칙



ㅂ받침이 ㄴ을 만나 ㅁ(음) 소리가 나요.

띄웁니다 → /띄웁니다/

부릅니다 /부릅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앞아서 떠나는 여행

옛날 사람들은 지도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조선시대 한반도 지도를 그리신 김정호 선생님은 전국을 다니며 관찰한 내용을 그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를 그릴까요?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에 카메라를 달아 우주에 띄웁니다.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지도를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우주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지명을 검색창에 넣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싶은 고장이 나오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장까지 함께 보고 싶을 때는 '축소'를 누릅니다. 현재 모습뿐 아니라 몇 년 전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신기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ㄱ 받침이 ㄴ, ㄹ을 만나면 ㅇ(응) 소리가 나요.

식물 → /싱물/

국물 /궁물/

먹는 /명는/

국민 /궁민/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안녕? 날 소개하지!

난 배추흰나비라고 해. 지금은 어른벌레지만 처음에는 알이었어. 알은 배추나 케일 같은 **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어. 🌾 연노란색의 옥수수 모양으로 생겼고 아주 작아.

🌱 알에서 나온 나는 알과 비슷한 연노란색 애벌레였어. 부화하자마자 알껍데기를 갉아 먹었지. 왜냐고? 알껍데기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거든. 알껍데기를 다 먹으면 식물의 잎을 먹어. 그러면 내 몸도 초록색으로 변해. 신기하지? 더 신기한 건 애벌레 일 때 허물을 4번이나 벗으면서 자란다는 거야.

애벌레로 20일 정도가 지나면 **먹는** 것을 멈춰. 번데기로 변할 준비를 해야 하거든.

🌿 번데기가 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과 비슷한 색의 번데기가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의 껍질이 벌어지면서 어른벌레인 내가 나와.

🦋 날 봐! 머리, 가슴, 배가 있고 다리도 3쌍이나 있는 곤충이 되었어. 이제 훨훨 날아볼까?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아래 그림은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단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 → () → () → ()

보기

번데기, 알, 어른벌레, 애벌레

2 다음 중 배추흰나비 한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배추흰나비의 알은 짙은 초록색이고 구슬 모양입니다.
- ② 배추흰나비 번데기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식물의 잎을 먹습니다.
- ③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영양분이 풍부한 알껍데기를 갉아 먹습니다.

3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배추흰나비는 곤충입니다. ()
- 2) 배추흰나비 애벌레는 처음에는 연노랑색 이었다가 식물의 잎을 먹으며 초록색이 됩니다. ()



오늘의
읽기규칙



ㅎ 받침 뒤에 ㄱ이 ㅋ 소리로 바뀌어요.

어떻게 → /어떠케/

닿기도 /다키도/

사이 좋게 /사이조케/

노랑게 /노라케/



소리 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정현이에게

정현아, 안녕? 나 승재야.

어제 체육 시간에 나를 응원해 줘서 고마웠어. 나는 공을 차는 것이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었거든. 우리 팀 친구들이 “승재,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부담이 되었지. 사실 난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못 차도 괜찮아!”라고 말해줘서 마음이 한결 편했어.

수비하는 친구는 내가 찬 공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잡았고, 나는 부끄러워하며 자리로 들어왔지. 친구들은 내가 점수를 내지 못해서 아쉬웠을 텐데, 너의 말을 들었는지 “괜찮아.”하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 난 평소에 네가 부반장 역할 하는 것에 샘이 났는데 어제는 그 마음이 사라졌어. 정현아, 고맙다. 너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야. 앞으로도 **사이 좋게** 지내자. 안녕.

2021년 4월 16일

승재가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편지를 쓸 때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
- 2) 편지를 쓸 때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씁니다. ()

2 편지 내용을 생각하며, 승재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골라 O표 하세요.

- 1) 승재는 처음 공을 차서 (긴장, 실망)하였습니다.
- 2) 승재는 친구들의 응원 소리에 (용기, 부담)이/가 생겼습니다.
- 3) “못 차도 괜찮아!”라는 말에 (부끄러운 마음, 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 그림을 보고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쓰세요.



친구가 나의 실수에 대해 “괜찮아.” 라고 말해줘서

_____.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이름을 → /이름/

모습을 /모스/

얼음골 /어름/

관련이 /괄러니/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고장의 특징과 지명

지명이란 땅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땅의 생김새나 옛날에 있었던 일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지명을 통해 고장의 자연환경과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 **얼음골**은 더운 여름 바위틈에 얼음이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두물머리’와 ‘얼음골’은 고장의 자연환경을 잘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은 기와를 굽던 큰 가마터가 있었기 때문에 ‘기와말’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은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말에게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고 해서 ‘말죽거리’라고 불렸습니다. ‘기와말’과 ‘말죽거리’는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지명입니다.

이처럼 고장의 지명은 고장의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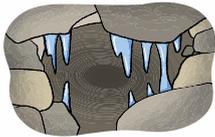
()이란 땅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땅의 생김새나 옛날에 있었던 일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2 지명과 고장의 특징이 알맞도록 바르게 이어보세요.



두물머리

-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말에게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얼음골

- 기와를 굽던 큰 가마터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기와말

- 더운 여름 바위틈에 얼음이 생긴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말죽거리

-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3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지명을 적어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names of local places.



오늘의
읽기규칙

겹받침을 발음할 때 뒤에 있는 받침만 소리 낼 때가 있어요.

닭 → /닥/

암탉 /암탁/

북다 /북파/

읽다 /익파/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닭의 한살이

닭, 개구리 그리고 악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동물 모두 알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닭의 한살이를 알아보시다.

닭은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알을 낳습니다. 어미 닭이 21일 동안 따뜻하게 알을 품어 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부리로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합니다. 병아리는 사료나 곡식을 먹고 자랍니다. 노란 솜털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점차 깃털로 바뀝니다.

병아리는 생김새가 비슷하여 암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두 달 정도 된 큰 병아리는 점차 **암탉**이나 수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암탉은 몸이 통통하며 가슴에 있는 부드러운 깃털로 알을 품어줍니다. 반면, 수탉은 머리 위에 톱니 모양의 붉은 볏이 생기고 꽂지깃이 길고 화려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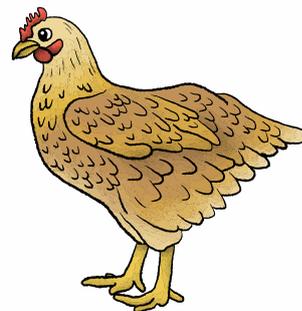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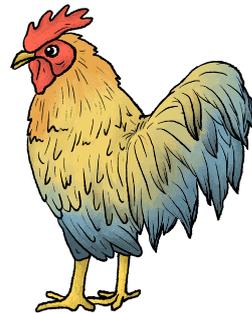
1 닭의 한살이를 완성해보세요.

알 → () → 큰 병아리 → 다 자란 닭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암탉과 수탉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
- 2) 암탉은 가슴에 부드러운 깃털이 있습니다. ()
- 3) 어미 닭이 3일 동안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부화합니다. ()

3 본문을 읽고, 알맞은 그림과 선으로 연결하세요.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ㄷ**, **ㅂ**, **ㅅ**, **ㅈ**가 **ㅌ**, **ㅃ**, **ㅆ**, **ㅉ**로 소리가 나요.

음지 → /육찌/

물속 /물쑈/

햇빛 /헛빔/

속도 /속또/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플랑크톤, 넌 누구니?

플랑크톤은 물에 떠다니는 생물을 말합니다. 플랑크톤은 식물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식물플랑크톤은 **육지**의 식물처럼 **물속**에서 **햇빛**을 받아 스스로 영양분을 만듭니다. 식물플랑크톤은 **햇빛**이 풍부한 물 표면에 잘 뜨기 위해 몸에 기름을 채우고 몸은 둥근 튜브 모양을 합니다. 가라앉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몸의 크기는 작습니다.

동물플랑크톤은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동물플랑크톤은 햇빛과 관계없이 깊은 곳이라도 물이 흐르는 대로 옮겨지며 삽니다. 다만 차가운 물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플랑크톤의 개체 수가 적당해야 바다 생태계가 잘 유지됩니다. 식물플랑크톤의 수가 줄어들면 동물플랑크톤의 수가 줄고 물고기들의 수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식물플랑크톤의 수가 많아지면 동물플랑크톤의 수도 증가하고 물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속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ㄱ, ㄷ, ㅅ가 ㄱ, ㄷ, ㅅ로 소리가 나요.

활/동 → /활동/

발상 /발쌍/

평가 /평까/

식당 /식땅/



소리내어 읽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문화유산이 소중한 이유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과학 발명품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 기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을 자세히 살펴본 적 있나요? 그 속에는 다보탑이 담겨 있습니다. 다보탑은 국보 제20호로 경주 불국사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탑입니다. 일반적인 탑과 달리 참신한 **발상**으로 특이하게 만들어져 통일신라 미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으며 안타깝게도 탑 속에 들어있던 유물과 돌계단의 사자는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속에 담긴 멋과 슬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ㄹ 받침 뒤에 ㅇ이 오면 ㅎ소리가 사라지고 ㄴ소리만 이사가요.

~~않~~을까 → /아닐까/

않을걸 /아닐걸/

괜찮아 /괜차나/

많아요 /마나요/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여기 여기 붙어라

“앗, 가위가 사물함 뒤로 떨어졌어.”

서연이가 사물함 위에 올려놓은 가위가 그만 사물함 뒤로 떨어졌습니다. 가위는 손에 닿지도 않고 사물함은 너무 무거워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짝꿍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자석이 있어! 가위는 자석에 붙지 **않을까?**”

현우는 얼마 전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어느새 모여든 친구들은 현우의 생각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위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라서 자석에 붙지 **않을걸**…….”

서연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자석을 가위의 날에 가져다 대면 잘 붙을 거야.”

현우는 서연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긴 자 끝에 자석을 매달아 사물함 틈 사이로 자석을 넣었습니다. 마침내 자석 끝에 가위의 날이 붙은 채 달려 올라왔습니다. 서연이는 무사히 가위를 찾았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과학자 같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현우는 배운 내용으로 친구를 도와준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경험~~을~~ → /경허믈/

까닭~~을~~ /까달글/

겪은 /겨끈/

원인과 /워닌과/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원인과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라고 하고,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을 결과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원인을 찾아봅니다. 먼저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살펴봅니다.

둘째, 결과를 찾아봅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합니다.

셋째, 이어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과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경험**을 말하면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고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말할 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차례에 맞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ㄱ, ㄱ가 ㄲ, ㅍ로 소리가 나요.

일상 → /일쌍/

역사 /역싸/

쉽게 /쉽께/

옷감 /은감/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녹청자도요지

여러분, 녹청자도요지를 알고 있나요? 녹청자도요지는 고려 시대 도기를 굽던 가마터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일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조상들이 사용했던 대접, 접시, 항아리 따위의 많은 녹청자 조각과 가마의 일부가 출토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녹청자도요지에는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물관의 내부를 살펴보면 **역사**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사전시실에는 녹청자 유물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통 도자기의 제작과정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의 아름다운 도예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이곳에서는 녹청자 축제가 열립니다. 전통물레 돌리기 체험, 전통 가마 불 지피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ㅎ이 ㄹ을 만나 소리가 사라져요.

넣어 → /너어/

넣으면 /너으면/

좋아요 /조아요/

짱아요 /짜아요/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자석과 우리 생활

자석은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서 자석의 성질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자석만 있다면 풀이나 셀로판테이프가 없어도 냉장고에 쪽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가방에 자석을 **넣어** 단추를 만들면 가방을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클립 통에 자석을 달면 클립 통이 뒤집히거나 바닥에 떨어져도 클립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속에 자석을 **넣으면** 스마트폰을 살짝 대기만 해도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트와 과녁판같이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장난감도 다양합니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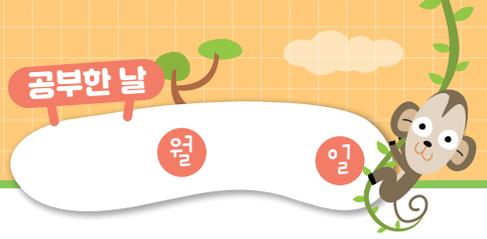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석은 ()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2 다음 중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물건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① 지퍼 필통
- ② 냉장고 자석
- ③ 짹짹이 운동화
- ④ 자석 달린 클립 통

3 생활 속에서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생활용품이나 장난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각나는 것을 한 가지 적어보세요.

Blank light blue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 answer.



오늘의
읽기규칙



겹받침을 발음할 때 앞에 있는 받침만 소리 낼 때가 있어요.

없습니다 → /업습니다/

뚫린 /풀린/

엮고 /언꼬/

많다 /만타/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소중한 꿀벌 살리기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꽃가루를 옮기지 못해 식물은 번식할 수 **없습니다**. 식물을 먹는 동물도 위기에 처합니다. 꿀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콜롬비아에는 도시에 ‘꿀벌 호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를 막아주는 지붕을 **엮고** 구멍이 **뚫린** 대나무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호텔답게 집을 청소해주는 관리인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꿀벌구조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 집 주변에 벌집이 있으면 벌집 그대로 꿀벌을 구조해 인근 양봉장으로 옮깁니다. 예전에는 불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됐지만, 꿀벌구조대가 생긴 이후 소중한 꿀벌을 보호합니다.

미국 뉴욕에는 ‘꿀벌 트럭’이 도시를 달립니다. 수백 마리의 꿀벌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면 주민들이 나와 꿀벌을 사갑니다. 뉴욕에서는 옥상과 정원에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벌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본문에 나온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기본형을 써보세요.

낱말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기본형
뚫린, 뚫려서, 뚫고	뚫	뚫다
엮고, 엮으니, 엮어서	엮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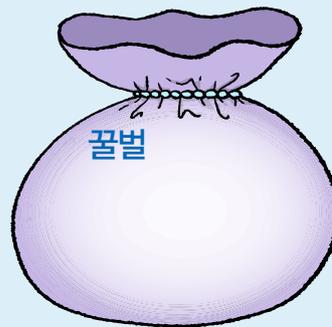
2 [보기]의 낱말을 형태가 바뀌는 낱말과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로 나누어 보세요.

보기

꿀벌, 청소하다, 보호하다, 지붕, 아파트, 도착하다, 설치하다



형태가 바뀌는 낱말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

3 본문에 나오는 낱말을 국어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써 보세요.

보기

대나무, 막다, 구조대

_____ , _____ , _____



오늘의
읽기규칙



이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나오는 ‘의’ 는 ‘에’ 로 읽어요.

인천의 → /인천에/

할아버지의 /하라버지에/

나의 /나에/

벼의 /벼에/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백령도 할머니 댁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백령도에 살고 계십니다. 백령도는 서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인천의** 여객터미널에서 배로 4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할머니 댁에 갈 때면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듭니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카페리에 차를 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차를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도 배에 실을 수 있다니 무척 신기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도 많이 챙겨 갈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섬 주민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위해 벼농사도 직접 짓는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봤던 경운기를 섬에서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운기를 타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때는 놀이공원보다 더 재밌습니다. 친구들과도 함께 놀러 오면 좋겠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탈 때는 자동차를 실을 수 없다. ()
- 2) 섬에서도 벼농사를 위해 경운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

2 고장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바르게 연결해보세요.

무거운 농사 도구나 농산물을
운반할 때 이용합니다.



카페리

사람과 함께 자동차를
배에 실어 운반합니다.



경운기

3 바닷가 고장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교통수단을 고르세요.

보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두 마을을
오고 가기 위해 ()를 이용한다.

- ① 갯배 ② 지프택시 ③ 모노레일 ④ 케이블카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이 ㄱ, ㄷ, ㅂ, ㅈ, 를 만나면 ㄱ, ㄷ, ㅂ, ㅈ 소리가 나요.

육지와 → /육찌와/

적당하지 /적땅하지/

작게 /작께/

떡보 /떡뽀/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지구 들여다보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푸른 빛의 지구는 크게 육지와 바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frac{1}{3}$ 은 육지이고 약 $\frac{2}{3}$ 는 바다입니다. 숫자만 보아도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물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육지에는 강, 호수, 계곡 등에서 물을 볼 수 있고 바다에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육지의 물과 바닷물의 가장 큰 차이는 맛입니다. 육지의 물은 짜지 않지만, 바닷물은 짠맛이 납니다. 바닷물에는 짠맛이 나는 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닷물에는 자연에 알려진 거의 모든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바닷물은 짜고 너무 많은 물질이 녹아 있어서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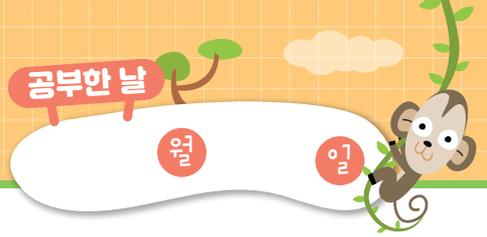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지구 표면은 크게 ()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보다 넓습니다.

2 글의 내용에 맞도록 바르게 이어보세요.

<p>육지의 물 •</p> <p>바닷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짠 맛이 난다. • 맛이 짜지 않다. • 너무 많은 물질이 녹아 있어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다.
-------------------------------------	--

3 다음 중 육지와 바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 ② 육지와 바다의 넓이는 비슷합니다.
- ③ 육지의 물과 바닷물은 모두 짠 맛이 납니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ㄱ, ㄷ가 ㄱ, ㄷ로 소리나요.

나뭇가지 → /나뭇까지/

잇달아 /잇따라/

쉽게 /쉽게/

막대기 /막때기/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아버지와 세 아들

늘 싸우기만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훈계해도 세 아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자 아버지는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을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들들이 저마다 나뭇가지 묶음을 구해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뭇가지 한 묶음을 아들들의 손에 **잇달아**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시켰습니다.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부러뜨리려 했지만 부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뭇가지 한 개씩만 따로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여주며 부러뜨려 보라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단다. 그럼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하려 해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갈라서고 다툰다면 이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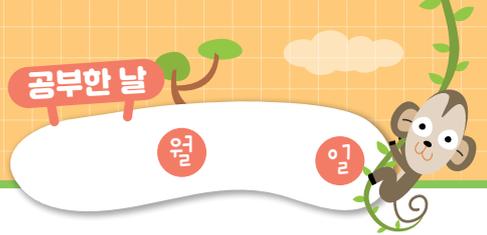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글에서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아버지는 싸우기만 하는 세 아들이 서로 돕기를 바랐습니다.
- ② 아버지는 세 아들이 나뭇가지를 많이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

2 글에서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나뭇가지를 한 묶음씩 부러뜨려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 ① 아들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 ② 아버지 말씀에 잘 따르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 ③ 아들들이 나뭇가지 묶음처럼 서로 힘을 합치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3 의견과 그 까닭을 나타내는 문장이 이어지도록 연결하세요.

약속을 잘 지킵시다.	•	•	나와 다른 사람이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	•	주변 사람과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힘으로 → /히므로/

생활은 /생화른/

짐을 /지믈/

늘어 /느러/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옛날과 오늘날의 교통수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말타기, 뗏목 등 자연의 힘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철, 비행기처럼 기계의 힘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생겨났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이나 걸어가야 하는 거리를 고속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면 3~4시간, 비행기를 타면 1시간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이나 **짐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외처럼 먼 곳도 빠르게 이동할 뿐 아니라 많은 양의 물건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가 **늘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미래의 교통수단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발달할 것입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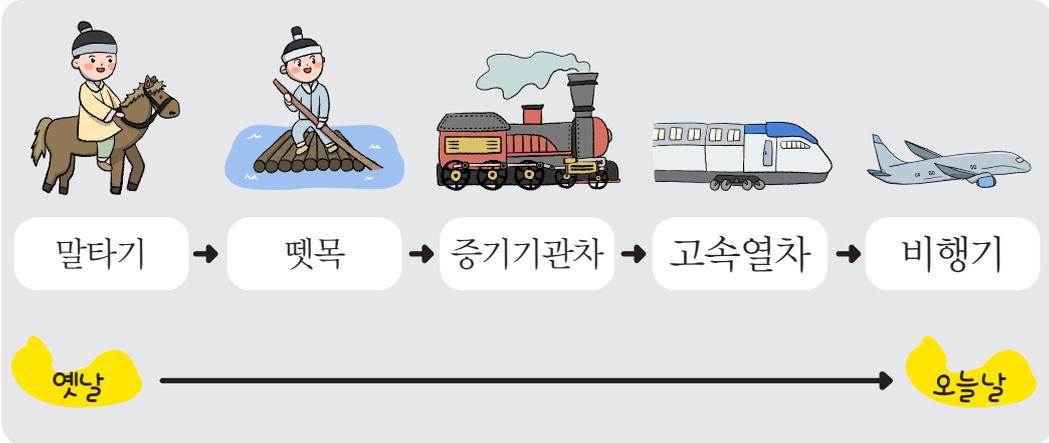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중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 1) 옛날 사람들은 말타기, 뗏목 등 (자연의 힘, 기계의 힘)으로 이동했습니다.
- 2) 오늘날에는 전철, 비행기처럼 (자연의 힘, 기계의 힘)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생겨났습니다.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
- 2)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

3 다음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기술의 발달은 교통수단의 발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② 교통수단이 발달해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 ③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람이나 짐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의
읽기규칙



ㅂ받침이 ㄴ를 만나 ㅁ(음) 소리가 나요.

떠다**ㅂ**니다 → /떠다**ㅁ**니다/

합니다 /합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지구와 달

우리가 사는 지구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흰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떠다닙니다**. 나무가 많은 숲속에서는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푸른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는 넓게 펼쳐져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환경은 다양한 생물이 살기에 알맞습니다. 물과 공기가 있고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달도 지구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둥근 공 모양이고 표면에는 돌이 있으며 하늘과 바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환경은 지구와는 아주 **다릅니다**. 달의 바다에는 물과 생물이 없습니다. 달에는 물도 없지만, 공기도 없어서 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온도도 낮에는 섭씨 130도로 너무 뜨겁고 밤에는 영하 130도까지 떨어져서 생물이 살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달에 토끼가 산다는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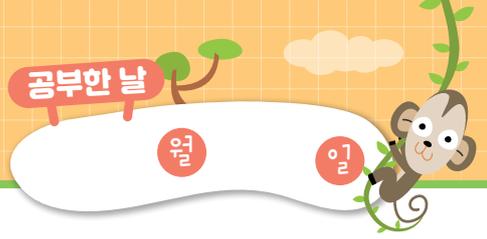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중 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 ② 바다에는 물과 생물이 없다.
- ③ 공기가 있어 하늘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인다.
- ④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2 다음 중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구 / 달)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기 좋습니다.
(지구 / 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검은색입니다.

3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달에는 바다가 없다. ()
- 2) 달과 지구는 모두 둥근 공 모양이다. ()
- 3) 지구는 생물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한다. ()



오늘의
읽기규칙



ㄱ 받침과 ㅎ이 만나 ㅋ 소리가 나요.

심각한 → /심가칸/

짐작하여 /짐자카여/

축하해 /추카해/

역할 /여칼/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짐작하여 글 읽기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낱말이 나오기도 하고, 글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짐작하여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 가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정하고 있어요. 반딧불이를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반딧불이는 애벌레의 먹이가 많고 물이 깨끗한 곳에 살거든요.

위의 글에서 ‘반딧불이 서식지가 사라져 간다.’, ‘반딧불이는 물이 깨끗한 곳에 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에서는 반딧불이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글에서 알게 된 단서와 경험을 바탕으로 ‘반딧불이가 사라져 가는 까닭은 옛날보다 애벌레의 먹이가 줄고 물이 더러워져서’라고 새로운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여 글을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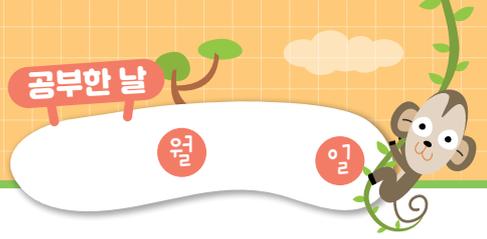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중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 ① 관련된 자기 경험을 떠올립니다.
- ② 사전에서 정확한 내용을 찾아봅니다.
- ③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합니다.

2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낱말의 뜻을 짐작하여 읽으면 읽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2)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읽으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나비 박사 석주명이 몸을 다쳐 가며 나비를 잡았던 까닭을 짐작하여 써 보세요.

나비 박사 석주명은 처음 보는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뒤쫓았으나 나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석주명은 나비를 꼭 잡겠다는 마음으로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부딪쳐 멍이 들고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시간, 그는 마침내 나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기구경

받침이 ㄴ을 만나 ㄴ(은) 소리가 나요.

옛날 → /엔날/

했는데 /헨는데/

있는 /인는/

샀는데 /산는데/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옛날의 통신수단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통신수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수단에는 휴대전화나 편지 등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통신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가서 말하거나 ‘서찰’이라는 글을 써서 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벽에 글을 써 붙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불이나 연기를 피워 올리면 멀리 **있는** 곳까지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봉수’라고 하는데 수십 리마다 마주 보이는 산에 봉수대를 설치해 소식을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호 연’을 높이 띄워 연에 그려진 문양과 색으로 내용을 전달하거나 북을 크게 쳐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의 ㅅ, ㅈ가 ㅅ, ㅈ로 소리가 나요.

심각성 → /심각썩/

약속 /약썩/

값진 /갑썩/

박수 /박썩/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지구의 날

사람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4월 22일에 열리는 지구의 날 행사에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전국의 공공기관과 주요 건물들을 중심으로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등을 끕니다. 단 10분일 뿐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줄여줍니다. 이것은 약 소나무 8,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약속**과 실천으로 얻어지는 아주 **값진**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지구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계획인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함께 ‘10분간 소등’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꼭 지구의 날이 아니더라도 ‘소등’은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실천입니다.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다음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세요.

- 1) 우리나라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 2)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2 다음 중 '10분간 소등'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

- 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늘린다.
- ②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 ③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늘린다.
- ④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인다.

3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적어보세요.



오늘의
읽기규칙



받침 뒤에 ㅇ이 오면 받침이 이사가요.

~~했~~어요 → /해써요/

만났어요 / 만나써요/

여쭙봤어요 / 여쭙봐써요/

하였어요 / 하여써요/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스마트폰 속 세상

오늘은 막내 삼촌과 재미있는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삼촌을 **만났어요**.

“주희야, 오래간만이다. 많이 컸네!”

삼촌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삼촌 손에 스마트폰만 있고 가방이나 지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여쭙봤어요**.

“삼촌, 오늘 우리 미술관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아, 맞다. 삼촌이 지갑을 안 가져왔네. 주희가 다 사줘야 하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세어봤어요. 용돈이 부족할까 걱정이 되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희야, 장난이야. 삼촌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곧 삼촌이 스마트폰으로 부른 택시가 도착했어요. 삼촌의 스마트폰에는 미술관 입장권과 맛있는 음식 쿠폰도 들어있었어요. 미술관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다니 참 신기**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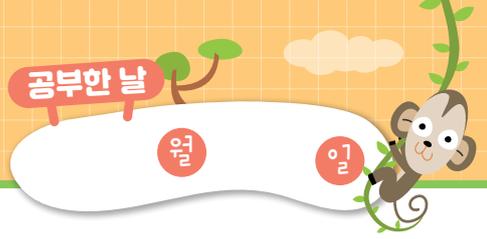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내용 파악하기 |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주희가 삼촌과 스마트폰으로 한 일에 O표, 아닌 일에는 X표를 하세요.

- 1) 택시 부르기 ()
- 2) 미술관 입장권 보여주기 ()
- 3) 자동차 문 열기 ()
- 4) 미술관 앞에서 기념 사진찍기 ()

2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우리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

- ①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 ② 집에서 컴퓨터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친구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통신 수단을 이용해 다양한 여가 생활을 하기는 힘듭니다.

3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달라진 우리의 생활 모습을 한 가지 생각해 적어보세요.



오늘의
읽기규칙



겹받침을 발음할 때 앞에 있는 받침만 소리 낼 때가 있어요.

앉아 → /안자/

옹지 /옹치/

앉다 /안타/

꿇다 /꿇타/



소리내어 읽기

| 파란색으로 표시된 낱말에 유의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공당 놀이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 노인은 주막에서 쉬어 가기로 했지. 구석에서 불편하게 **앉아** 쉬는데 한 젊은이가 자리를 내어주며 편히 앉으라고 권했어.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장기를 두었지. 그런데 계속 노인이 이기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 젊은이는 말끝에 ‘공’과 ‘당’을 붙여 말하는 말놀이를 하자고 했어. 노인이 먼저 물었어.

“서울에 무엇 하러 가는 공?”

“과거시험 보러 간당.”

“내가 벼슬자리 하나 줄 공?”

“에이, 놀리는 건 **옹지 앉당**.”

그러는 사이에 비가 그쳤고 노인과 젊은이는 각자의 길을 갔지. 젊은이는 시험에 합격해 우의정을 만났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었는공?” 하고 묻는 거야. 고개를 들어 보니 그 노인이 눈앞에 있는 거야. 젊은이는 “죽어 마땅합니다당.”이라고 했대.

노인은 바로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기로 유명한 정치가, 맹사성이야.

글을 한 번씩 읽고
표시하세요.



1

2

3





30일 동안 읽기 여행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선생님, 친구들과 교과서 속 여러 글을 읽으며 읽기 실력을 쑥쑥 높여보았나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의 읽기 실력을 한 번 더 알아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글이 하나 보여요.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제목부터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읽어 보세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숨 한 번 쉬고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



무궁화

무궁화를 본 적 있나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입니다. 무궁화는 새벽 일찍 꽃을 피우고 저녁에는 꽃이 집니다. 우리가 보는 무궁화는 매일 새롭게 핀 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7월부터 약 100일 동안 꽃이 핍니다. 무궁화라는 이름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하늘나라의 꽃이라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궁화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이 특성이 우리 민족의 끈기와 고귀한 정신을 닮았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애국가에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꽃이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나타내는 무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읽은 곳까지 // 표시해보세요.



글을 읽으며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오늘의 도전 날짜

월

일

나의 기록을 아래 적어보세요.



내가 잘한 부분에 표시해보세요.

의미를 잘 살려 띄어 읽었다.



글을 잘 이해하며 읽었다.



알맹이를 시작하기 전과 후, 내 읽기 실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Large empty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 response.



읽기 여행을 끝까지 마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부록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라 비 이



정답

36~37쪽

11 마음을 표현하는 말

일차

1 x, o 2 긴장, 부담, 편한 마음

3 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44~45쪽

15 문화유산이 소중한 이유

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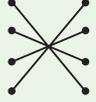
1 문화유산 2 ③, ④

3 문화유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등.

38~39쪽

12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일차

1 지명 2 

3 학익동, 용현동 등.

46~47쪽

16 자석에 붙는 물체

일차

1  2 ②

3 클립, 칩, 옷핀 등

40~41쪽

13 알을 낳는 동물

일차

1 병아리 2 x, o, x

3 

48~49쪽

17 원인과 결과

일차

1 원인, 결과 2 ③

3 왜냐하면

42~43쪽

14 글을 읽고 내용 간추리기

일차

1 o, x, x

2 1)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2) 식물플랑크톤

3 동물플랑크톤은 식물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50~51쪽

18 우리 고장 문화유산 소개

일차

1 녹청자도요지 2 ③, ④

3 

52~53쪽

19 자석과 우리 생활

일차

1 철 2 ②, ④

3 필통뚜껑, 스마트폰거치대 등.



70~71쪽

28 소중한 지구 보존하기

일차

- 1 X, O 2 ②, ④
3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등.



72~73쪽

29 통신수단의 발달

일차

- 1 O, O, X, O 2 ④
3 멀리있어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등



74~75쪽

30 재미있는 부분 찾기

일차

- 1 ③ 2 ✕
3 예 알맹이읽기 공부 재미있는공?
재미있고 공부도 되어 좋았당.

부록



읽기 유창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아 라 맘 이



교사용 평가 기록지

사전 평가 교사용 기록지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학생은 제목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안내해주세요.
- 교실에서 단체로 평가할 때는 학생이 글을 읽은 후 스스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이팝나무

우리나라에는 5월이면 초록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푸른 이파리 위로	1
쌀알처럼 생긴 하얀 꽃잎이 핀 나무를 본 적 있나요? 이 나무의	9
이름은 이팝나무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데에 예로부터	20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27
조선시대에는 쌀로 만든 밥이 귀했습니다. 백성들은 보리밥을 먹으며	31
배고픔을 달렸습니다. 쌀밥은 벼슬을 하는 양반들이 먹는 음식	39
이었습니다. 당시 양반 중에는 ‘이 씨’ 성을 가진 양반이 많았습니다.	46
그래서 쌀밥은 ‘이 씨의 밥’ 또는 ‘이밥’이라고 불렸습니다.	56
사람들은 나무에 핀 하얀 꽃잎을 보고 이 씨 양반들이 먹는 쌀밥	64
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밥나무라고 불렸습니다. 그 뒤, 이밥나무는	74
자연스럽게 이팝나무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쌀처럼 생긴	82
꽃잎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팝나무의 꽃이 잘 피면 풍년이 든다고	89
믿었습니다.	99
	100

학생 이름		
읽은 날짜	월	일
바르게 읽은 어절 수	어절	

사후 평가 교사용 기록지

-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 선생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학생은 제목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안내해주세요.
- 교실에서 단체로 평가할 때는 학생이 글을 읽은 후 스스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무궁화

1

무궁화를 본 적 있나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입니다. 9

무궁화는 새벽 일찍 꽃을 피우고 저녁에는 꽃이 집니다. 우리가 18

보는 무궁화는 매일 새롭게 핀 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7월부터 27

약 100일 동안 꽃이 피니다. 무궁화라는 이름은 ‘영원히 피고 또 37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42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옛 기록을 50

보면 하늘나라의 꽃이라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57

‘무궁화 나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궁화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65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이 특성이 우리 민족의 끈기와 고귀한 75

정신을 닮았습니다. 77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애국가에 들어가면서 83

무궁화는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89

대표하는 나라꽃이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 95

의원을 나타내는 무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100

학생 이름		
읽은 날짜	월	일
바르게 읽은 어절 수	어절	





참고문헌

- 교육부(2021). 초등학교 국어 3학년 1학기.
교육부(2021). 초등학교 사회 3학년 1학기.
교육부(2021). 초등학교 과학 3학년 1학기.
대전시교육청(2018) 읽기가 술술~ 읽기 달인 되기: 가나단계 자료.
대전시교육청(2018) 읽기가 술술~ 읽기 달인 되기: 다라단계 자료.
정재석, 장현진(2014) 읽기자신감 4권. 좋은교사운동.
템북(2020) 따스함 실력편 시리즈. 템북.

사진 출처

- 9일차 33쪽 국토정보플랫폼 소축척지도(대한민국전도-항공영상), CC BY
9일차 33쪽 동여도, 국립중앙박물관, CC BY

읽기 유망성으로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익히는

알맹이

총괄

김광석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기획

남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인성교육팀 장학관

서희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인성교육팀 장학사

집필진

김중훈 배움찬찬이 대표

주명희 인천주원초등학교 교사

최순영 인천경서초등학교 교사

강희주 인천도담초등학교 교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기 **즐기 1**

